

지옥: 종교적 위선자들의 종착지(눅56)

성경말씀: 눅16:14-31

많은 사람들의 문제: 탐욕, 특히 “주어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15장, 회개하기 전의 작은 아들:
인생과 재물 허비, 큰 아들: 불평에 차서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함, 둘 다 옳지 않음

지혜로운 청지기

청지기직 회계보고, 박탈, 우리는 청지기,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 회계 보고한다.

1. 세상의 돈, 기회, 학식, 명예를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성경, 복음, 교회, 구원받을 지들
2. 작은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 돈 문제 등 육적인 일에 신실해야 한다.
3.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길 수 없다(13).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바리새인들의 반응

듣고는 비웃음(14): “영원한 가치, 천국이 다 무슨 말인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의 정곡 찌르기(15): 기도, 구제, 종교 행위 모두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 눈에는 굉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크게 평가받는 것은 가증한 것, 교황
우리과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속이 빈 채 큰 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

재물, 명예, 지식, 학식 등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

시대가 바뀌었다(16). 히1:1-2,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들어간다.

율법은 폐한 게 아니라 성취되었다(마5:17-20). 고후3:14-17

율법과 대언자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구원자를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17). 그런데 너희는 간음하고 있다(18). 출20:14, 창2:24
간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건한 척하는데 탐욕, 간음 등 말씀을 범하고 있다.

두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

종교인들의 종착지는 지옥이다(19-31)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옥의 실상을 보여 주신다. 아직 구약시대

부자와 나사로 실화, 비유에는 이름 No, 나사로, 아브라함, 부자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 씨, 씨 뿌리는 자, 땅 등 무엇을 비겨서 교훈을 줌

여기의 지옥,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구렁텅이, 부자의 형제들 등은 무엇과 비교 대상이 아님.

1. 두 사람의 비교(19-21), 부자의 옷 대단한 재물, 나사로의 형편없는 실태

예수님의 초점(16:9), 재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라.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 빈부의 양극화 극심함, 주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면 특히 가난한 자들 배려하라.

특히 그 당시 부자들은 거의 다 악한 수단으로 돈을 벌: 내세에 대한 염려 하지 않음, 믿음이 없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영도 가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실하고 확실하였다.

마5:3-6, 눅6:24-25,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주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

핵심은 영원에 가치를 두는 사람,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맘몬을 섬기는

2. 죽으면서 운명이 대조적으로 바뀐다(22). 다 죽는다(히9:27).

의인이 먼저 죽고 악인은 장수함, 시편 73편 아삽의 시

믿는 자들은 죽을 때에도 특권이 있다: 천사들이 영접한다.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영(히1:14)

3. 부자의 지옥 고통(23-24): 이곳은 음부가 아니다. 고통의 장소이다(4번). 전갈의 고통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는데 멀리서 보니(23) 더 고통이다.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24), 유대인, 혈통이 소용없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4. 지옥의 필요성: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필요한가?

사랑이시지만 근본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 땅에 왜 교도소와 감옥이 필요한가? 살인자 등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평안을 위해 분리시켜야 한다. 거기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라? 하나님은 그분과 같은 품성의 사람만 받아들이신다.
사람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된다(롬8:29).

이런 사람만 그분의 신성에 참여한다. 천국

반면에 하나님은 지옥을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드셨다(마25:41).

이들의 특징: 교만, 하나님 대적, 탐욕, 마귀의 사람 유혹: 본질 신들과 같이 되게 함, 교만과 탐욕,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따로 떼어 분리 보관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계20:14-15). 이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죽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 최종 장소를 불 호수라고 한다. 맨 끝에는 사망과 지옥이 여기로 들어감(15).

5. 지옥의 위치와 구조: 성경의 지옥은 땅(지구) 속 중심부이다(마12:40).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으면 몸은 무덤에, 혼은 땅 속 지하세계로 갔다.

지하 세계는 1) 지옥, 2) 낙원(아브라함의 품), 3) 둘 사이의 구렁텅이(무저갱), 26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동안 낙원에 가셨다. 누가복음의 강도를 맞이함(눅23:42-43)

그 뒤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있던 모든 혼을 셋째 하늘로 옮김(엡4; 고후12). 지금은 거기에 낙원 지옥과 무저갱은 여전히 땅 속에 있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죽자마자 셋째 하늘로 주님께로 간다(고후5:7-8; 빌1:23).

6. 지옥의 특징

a.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장소(24), 불의 장소

b.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 장소(25), 긍휼은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

c.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롬2:4). 26절: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

d.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브라함의 대답(25), 부자의 수용 100%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못함

e. 기억이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 나사로, 자기 형제들

f. 지옥에 있는 혼의 실체: 보고 느끼고 말한다. 이 혼은 진짜 사람, 성경의 혼은 몸이 있다.

g. 계6:9-11, 다섯째 봉인, 말하고 옷을 입는다. 혼의 수면 등은 없다(안식교, 여중).

7. 종교인은 지옥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 자녀 No, 아내 No!

5형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여 오지 말게 하라(27-28)

땅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음. 거기서 기억이 남, 시간이 있을 때 여기서 해야 한다.

그의 이 간청도 수용되지 않음. 지옥에서는 어떤 간청도 수용되지 않는다.

8.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29). 매주 모여 구약성경을 읽는다. 회당에서 말씀

강론을 듣는다. 핵심: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약의 여러 사건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매우 무섭다(히12:21, 28-29).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듣지 않는다(31).

9. 성경을 주신 이유(롬15:4): 배움을 위해, 하나님, 창조, 창조물, 사람의 본분, 교만, 탐욕 No

결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다. 1. 유대인, 2. 성경, 3. 많은 재산, 4. 나사로(베풀 이웃

21절을 보라, 먼저 죽는 것도 봄 22절)

그러나 그는 15절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의롭게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야 한다.

또한 멸망 받을 세상을 사랑하고 때를 파악하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

부자는 지옥에 가셔도 자기와 가족들만 생각, 이기적이다.

그래서 지옥은 혼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아니라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 이런 감옥은 반드시 필요하다. 막8:36-38

지하 세계: 지옥

